4강

초공본풀이
- 제주도 심방의 '멩두' 무업조상(巫業祖上)과 굿의 유래

초공본풀이
- 제주도 심방의 '멩두' 무업조상(巫業祖上)과 굿의 유래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1. 심방 조상과 굿의 내력, 초공본풀이

임정국 대감과 짐진국 부인은 부자로 잘 살았지만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여 늘 신세를 한탄하였다. 어느 날 황금산 도단땅의 소사중이 집에 권제삼문을 받으러 온 것을 계기로 절에 백일 불공정성을 드려 딸을 낳는다. 마침 가을 단풍이 들 때 태어나니 딸의 이름을 '저 산 줄이 벋고 이 산 줄이 벋어 왕대월석 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멩왕아기씨'라고 이름 짓는다.

자지멩왕아기씨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하늘 옥황으로부터 벼슬살이를 떠나라는 명을 받는다. 부모는 딸아이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자지멩왕아기씨를 염려하여 살장에 가두고 하인인 느진덕정하님에게 보살펴달라고 당부한다. 부모가 떠난 뒤 아기씨는 살장에 갇혀 지낸다. 그런데 하루는 황금산 도단땅의 주자선생이 권제를 받으러 자지멩왕아기씨 집으로 와서 살장의 문을 열고 자지멩왕아기씨의 상가마를 쓰다듬었다. 주자선생은 자지멩왕아기씨에게 나중에 자신을 찾을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자지멩왕아기씨는 주자선생의 증표(본메본짱)를 받아둔다.

주자선생을 만난 뒤 자지멩왕아기씨는 임신을 하게 되고 느진덕정하님은 부모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연락을 한다. 부모는 딸의 임신을 알게 되자 자지멩왕아기씨를 느진덕정하님과 함께 집에서 내쫓는다. 둘은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난다. 길을 가는 도중에 칼쏜ᄃᆞ리, 애손ᄃᆞ리, 등진ᄃᆞ리, 올은ᄃᆞ리, 거은물, 조심ᄃᆞ리, 수삼천릿질 등 여러 고난을 겪는다. 그렇게 가다 보니 주자선생이 있는 절에 당도하여 자지멩왕아기씨는 주자선생을 만나 증표를 내놓았다. 주자선생이 자지멩왕아기씨에게 자기를 찾아온 인간이 분명하다면 찰벼 두 동이를 손톱으로 까서 올리라고 하자 주위의 새들이

날아들어 모두 까주었다. 주자선생은 자지멩왕아기씨를 인정하면서 중이 부부살림을 하지 않으니 불도땅에 가서 살라고 하였다.

자지멩왕아기씨는 불도땅에서 아들 삼형제를 낳는다. 본멩두는 9월 초여드레에 어머니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신멩두는 9월 열여드레에 어머니 왼쪽 겨드랑이에서, 살아살축 삼멩두는 9월 스무여드레에 어머니 애달픈 가슴을 뜯어 헤치며 태어난다. 삼형제는 아버지 없는 서러움을 겪으며 성장한다. 살림도 가난하였기 때문에 서당에서 온갖 심부름을 하며 귀동냥으로 공부를 한다. 서당의 삼천선비들은 삼형제를 두고 재(灰) 위에 쓰는 연습을 하느라 항상 재를 묻히고 다녔기 때문에 '젯부기 삼형제'라고 이름 짓는다.

젯부기 삼형제는 열다섯이 되자 과거를 치르기 위하여 삼천선비들의 종으로 함께 길을 떠난다. 삼형제는 삼천선비들의 갖은 모략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장원급제를 한다. 삼천선비들은 삼형제와 대한 시기와 질투로 자지멩왕아기씨를 삼천전제석궁에 가두어 버린다. 결국 삼형제는 벼슬을 버리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방도를 찾는다. 삼형제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주자선생을 찾아가라는 말을 듣는다. 삼형제는 아버지인 황금산 도단땅 주자선생을 찾아가 스스로 전생 팔자를 그르쳐 무구(멩두, 연물)를 마련하고 의형제를 맺은 너사메너도령과 함께 굿을 하여 어머니를 살린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너사메너도령과 함께 어주에 삼녹거리 당주집에 머물게 하고 자신들은 삼시왕으로 들어서서 양반에게 원수를 갚는다.

그때 유정승 따님아기가 여섯 살 나는 해에 육관대사로부터 육간제비를 얻는다. 그 뒤 유정승 따님아기는 일곱 살부터 일흔일곱 살이 되도록 눈이 어둡고 죽다 살다하기를 거듭한다. 결국 유정승따님아기는 역시 팔자를 그르쳐 삼시왕으로부터 무구를 얻고 자부장자 집의 외딸아기를 위한 굿을 하여 심방이 되었다(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 천하 임정국대감, 지하 짐진국대감 : 젯부기 삼형제의 외조부모. 자지멩왕아기씨의 부모. 부부간에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불공을 드려 딸을 얻음
- 황금산 도단땅 주자대선생 : 젯부기 삼형제의 부. 자지멩왕아기씨를 잉태시켜 삼형제를 낳게 함. 나중에 삼형제에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굿을 하는 방도를 알려줌
- 저 산줄이 벋고 이 산줄이 벋어 왕대월석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멩왕아기씨

(자지멩왕아기씨) : 젯부기 삼형제의 모. 주자대선생을 찾아가 불도땅에서 삼형제를 낳음. 나중에 삼형제에 의해 당주를 지키는 존재가 됨

- 젯부기 삼형제 : 본멩두, 신멩두, 살아살축 삼멩두 삼형제. 서당에 다니며 재(灰)에 글씨 연습을 하며 공부를 하였다고 해서 젯부기 삼형제라고 불림. 과거 급제를 버리고 깊은 궁에 갇힌 어머니를 살린 뒤 저승 삼시왕으로 들어서 무업조상으로 좌정
- 너사무너도령(삼형제) : 젯부기 삼형제의 의형제. 젯부기 삼형제와 결연하여 함께 굿을 하고 무악기(연물)를 담당함
- 유정승 따님아기 : 최초의 심방. 여섯 살에 육간제비를 얻은 뒤 일곱 살부터 일흔일곱 살이 되도록 눈이 어둡고 죽다 살다하기를 거듭하다 삼시왕으로부터 무구를 얻고 굿법을 전수받아 자부장자 집의 외딸아기를 위한 굿을 함

<사진 1> 초공본풀이 구연

<사진 2> 초공본풀이 구연

[젯부기 삼형제와 너사무너도령(삼형제)]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본멩두, 신멩두, 살아살축 삼멩두를 두고 '젯부기 삼형제'라고 일컫는다. 젯부기 삼형제는 깊은 궁에 갇힌 어머니 자지멩왕아기씨를 살리기 위해 굿을 해야 하는데, 이때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를 만나게 된다. 젯부기 삼형제와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는 같은 팔자임을 인식하고 서로 의형제를 맺는다. 이들은 자지멩왕아기씨의 속옷 속으로 함께 넘나들어 결연한다. 나중에 젯부기 삼형제는 심방의 무업조상인 삼시왕으로 들어서고,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는 자지멩왕아기씨와 함께 당주를 지키며 무악기인 연물(북, 설쒜, 대양, 장구)을 맡은 신으로 좌정한다. 너사무너도령

삼형제의 성격은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소미라고 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 따르면 젯부기 삼형제와 유정승따님아기를 도와 실질적으로 굿을 함께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정승따님아기]

유정승따님아기는 초공본풀이에 따르면 최초의 심방이다. 일곱 살에 육간대사(혹은 삼베중, 삼형제) 의해 육간제비라는 무구를 얻고는 안병(眼病 즉 神病)이 들어 일흔일곱 살이 되도록 안병을 반복하다가 결국 '팔자를 그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 동네에 부잣집 딸이 죽어가므로 딸을 살리기 위한 굿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막상 무구가 없어 굿을 못하게 되자 젯부기 삼형제의 어머니인 자지멩왕아기씨를 찾아가서 자격을 인정받고 수양딸로 들어서서 무구 일체를 물려받는다. 굿을 하여 부잣집 딸을 살리며 최초의 심방이 되고 후대에 굿법을 전수하였다. 젯부기 삼형제가 굿법을 창조한 신이라면, 유정승따님아기는 굿법을 전승한 신이다. 현재의 제주 심방들도 유정승따님아기가 행한 굿법에 따라 신굿을 치르고 무업에 들어서는 것이다.

[당주]

<사진 3> 당주

당주는 심방이 멩두를 모시는 곳이다. 심방은 평소 자신의 집에 당주를 마련하여 멩두를 모시다가 굿이 나면 굿판에 가져가 공싯상에 둔다. 초공본풀이에 따르면 젯부기 삼형제는 저승 삼시왕으로 올라가지만, 삼형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멩두는 당주에 남는다. 젯부기 삼형제에 의하여 어머니 자지멩왕아기씨와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는 당주에 좌정하여 무구를 지키는 신이 되었다. 더 나아가 무구를 마련하러 유정승따님아기가 찾아오니 당주집에서 멩두를 중심으로 하는 무구의 전승이 이루어진다. 당주는 초공본풀이의 무업 관련 신들이 좌정하는 특별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주의 장식물을 보아도 드러난다. 기메인 '살장'과 '육고비'를 걸어놓기 때문이다. 심방은 해마다 삼멩두의 탄생일인 9월 8일, 18일, 28일에 당주제를 지낸다.

2. 멩두와 심방의 무업(巫業)

[제주의 무(巫), 심방]

심방은 제주에서 무당을 이르는 말이다. 이미 『월인석보』(1459년)와 『능엄경언해』(1462년)라는 15세기 문헌에 심방이라는 한글 표기가 있다. 17세기 초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와 18세기 초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에는 심방과 무업의 기록이 있다. 심방의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다. 심방이 두루 사용하는 보편적인 명칭이나, 이밖에 심방을 부르는 이칭(異稱)도 존재한다. 이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한다. 첫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부르는 이칭이다. '나그네', '일안어른' 등이다. 둘째, 심방이 굿을 집행하면서 스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의 성방', '신의 아이', '거헝집ᄉᆞ관'(擧行執事官), '그엉신내(거엉신내)' 등이다. 심방 자신을 여러모로 달리 표현하는 말이다.

심방은 초공본풀이라는 신화를 자신들 무업의 내력으로 삼고, 본풀이에 근거를 둔 '멩두'라고 부르는 무구를 누구나 조상으로 섬긴다. 자신도 신앙민과 함께 같은 마을에 살며 크고 작은 굿을 한다. 심방은 신과 신앙민을 연결하여 기원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굿을 하면서 신앙민의 소망을 신에게 전달하고 여러 형태의 점을 쳐서 신의 뜻을 확인하여 신앙민에게 전달한다. 심방은 제주도 무속 전통을 지속하는 종합 예술가들이기도 하다. 본풀이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무가를 익혀서 부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굿하는 내내 춤추며 노래한다. 게다가 심방들은 누구나 무악기를 연주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제주도 굿에는 악사가 따로 없는 탓에 심방이 곧 악사이다. 심방은 노래, 무용, 연주, 무구 제작 등을 모두 감당하는 예인(藝人)의 면모를 갖추었다.

[멩두]

멩두는 심방이 모시는 무업의 조상이자 굿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무구이다. 제주도 심방이라면 누구나 멩두를 모신다. 멩두는 신칼, 산판, 요령을 말한다. 세 가지 종류이니 '삼멩두' 또는 '일월삼멩두'라고도 한다. 멩두는 심방 집의 당주에 모시다가 굿판에서는 공싯상에 놓는다.

신칼은 놋쇠로 만든 ‘신칼’과 백지를 가늘고 길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 달아맨 ‘신칼치메’로 이루어져 있다. 2개가 한 쌍이다. 신칼은 점구이면서 심방이 춤을 출 때도 사용한다. ‘시왕대번지’라고 부른다.

<사진 4> 신칼

산판은 천문, 상잔, 산대를 모두 일러 부르는 명칭이다. 모두 놋쇠로 만든다. 천문은 엽전 모양으로 생긴 것이다. 천지일월(天地日月) 또는 천지문(天地門)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상잔은 술잔 모양이다. 천문과 상잔은 각각 2개가 한 쌍으로 점구이다. 산대는 작은 접시 모양으로 천문과 상잔을 담아 두는 일종의 그릇이다.

<사진 5> 산판

요령은 심방이 손에 들고 흔드는 종 모양의 무구이다. 요령에도 여러 갈래의 천을 길게 매달아 놓는다. 이를 ‘요령치메’라고 한다. 요령은 심방이 신을 청할 때 흔들며 경우에 따라 본풀이를 구연할 때도 사용한다. ‘천앙낙훼금정옥술발’이라고 부른다.

<사진 6> 요령

멩두는 물질전승과 구비전승을 두루 갖추고 있는 무구이다. 초공본풀이는 멩두의 명칭, 제작, 전승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멩두는 강력한 신화적 전거를 갖추고 있는 신성무구인 셈이다. 심방은 반드시 멩두를 지녀야 굿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멩두를 물려받거나 스스로 만들기도 한다. 심방이 멩두를 마련하는 양상에 따라 물린멩두, ᄌᆞ작멩두, 봉근멩두, 제절멩두, 본향멩두라고 하여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물린멩두는 기존에 다른 심방이 사용하던 멩두를 그대로 전승한 것이다. ᄌᆞ작멩두는 말 그대로 자작(自作)하여 만든 멩두이다. 봉근멩두는 우연하게 습득한 멩두를 말한다. 제절멩두는 심방 묘소의 상석 앞 계절(階節)에 묻은

<사진 7> 멩두와 공싯상

<사진 8>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멩두

멩두를 이른다. 본향멩두는 한 마을의 본향당을 맡는 '메인심방'에게만 전승되는 멩두이다. 멩두의 유형 가운데는 전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물린멩두가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이다. 봉근멩두와 제절멩두 같은 유형에서는 신병과 큰 관련을 보인다. 본향멩두 유형은 특히 심방의 세습 입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방은 입무하기 위하여 멩두를 마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멩두로 인하여 입무하기도 한다.

심방의 무업활동과 멩두의 전승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멩두를 전승하는 목적은 무업조상을 모시고 핵심무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심방의 자격을 갖추는 행위이기도 하다. 멩두를 전승하여 얻는 효과는 심방의 경제기반 마련과 멩두 내력에 따른 심방의 권위 확보이다. 이는 심방의 무업활동 기반을 다지는 행위이기도 하다. 멩두 전승과 관련한 의례로는 멩두의 제작과 멩두고사, 멩두의 좌정과 당주제, 멩두의 신성과 신굿, 멩두의 역사와 공시풀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신굿은 멩두의 신성을 바탕으로 심방을 공인하는 절차이다. 신의 길을 바르게 하고 심방의 무업활동을 인증하기 때문이다. 공시풀이는 심방이 조상들을 대접하고 멩두를 전승한 내력을 밝히며 자신의 생애를 말하는 의례이다. 멩두는 제주도 심방과 무속을 해명하는 근본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심방들은 누구나 이런 멩두를 모시기 때문에 심방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제주신화학교 강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참고문헌을 따로 밝히지 않음)